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가의 경제 및 전자산업 개관

1) 경제 개관

대부분의 선진 경제국(미국, 캐나다 그리고 EU)의 대부분 국가들은 98년 상반기에는 꾸준한 성장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적 입지는 서유럽과 북미 주식시장의 하락과 러시아와 남미 특히 브라질이 경제가 악화되었고 하반기에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정치적인 마비로 인해 더욱 나빠졌다. 1999년 1/4분기에는 경제적 긴장이 이완되었으나 세계적인 전망은 여전히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위험으로 밀레니엄 버그(Millennium Bug) 문제로 부터 발생하는 경제붕괴의 가능성이 있다.

선진 경제국의 GDP성장은 1997년의 2.9%에서 1998년 2.2%, 99년 1.6%으로 다소 둔화되다가, 2000년에는 1.9%에 까지 오를 것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US의 GDP는 98년말에는 안정된 직장의 증가와 강한 소비자 신용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저축률과 더불어 민간소비는 절제되었는데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었다.

사업 투자는 감소된 이윤과 취약한 제조업 사이에서 약화되

고 있다. 재고 조정과 마이너스 순수출은 GDP성장을 98년의 3.7%에서 99년 2.4%, 2000년 2.1%로 더욱더 둔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GDP는 98년 3/4분기에는 0.7%하락했는데 이는 연속 4분기 하락으로 내수침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한 아시아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성장하였고 공공 지출도 정부의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9년 전망은 고무적이지는 않다. 재정정책은 98/99년에 비해 다소 옹호적이나 외부 부문은 국제 환경 악화로 인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전망은 상당부분 개인소비에 달려있다. 가처분 소득은 실질감세에 의해 지탱되어져야 하나 신용은 높은 실업으로 인해 그 반대로 영향받을 것 같다. GDP성장은 98년에는 2.9%, 99년에는 0.9%로 떨어지다가 2000년에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태평양 8개국 중 6개국 GDP의 성장은 98년에 마이너스였으나 싱가포르와 대만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다.

98년 말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은 화폐 가치와 소비자 신용의 회복과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세의 징조를 보이고 있

었다.

홍콩과 인도네시아가 98년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필리핀은 99년 성장이 예측된다. 2000년에는 모든 국가가 다시 성장할 것 같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GDP성장은 98년 -7.7%, 99년 -1.0%, 2000년 2.9%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98년에는 7.8%, 99년 7.3%, 2000년에는 7.2%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EU의 GDP는 안정된 내수로 인해 98년 2.8%, 99년 2.1%, 2000년 1.9%의 성장이 예측된다. 소비자 및 기업 신용은 낮은 이자율, 완화된 긴축재정, 실질소득 증가와 실업률 하락(여전히 높지만)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수출은 건실하나 아시아 위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GDP는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GDP를 포함, EU전체적 GDP와 더불어 성장세일 것이다. 영국의 경제는 EU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 소련 연방의 GDP는 러시아의 전망 악화로 인해 98년과 99년 3.7%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의 성장은 이전의 예상치인 98년의 2.3%, 99년 2.2%, 2000년 3.3%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2) 전자산업 개관

서유럽과 미국, 일본 및 중국을 제외한 아태평양 32개 주요 국가에서의 전자 기기 및 부품 시장은 96년의 미화 9,680억\$와 비교하여 97년 9,720억\$로 0.4%증가하였다.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질 성장은 3.9%가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 하락세를 겪었고 그 후 94년의 7.6%로 성장하여 95년 실질 성장 11.4%로 급성장하다가, 96년에는 4.1%, 97년에는 3.9%로 둔화되었다.

98년 아태평양 지역의(중국 제외) 경제 위기는 반대로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주었고 전

체 시장의 16%에 달하는 반도체 시장을 10%로 하락시켰다. 이것은 0.4%로 예상되는 마이너스 실질 성장의 결과를 초래했다.

99년 일본을 포함하는 아태평양 지역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활발한 미국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전자 시장에서 실질 성장을 이룩하는 반도체 시장도 2.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과 나머지 아태평양 지역은 2000년과 2001년 빠른 성장이 예측되며, 2000년 미국과 유럽 전자제품 시장에서 약간 성장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2000년 3.8%, 2001년의 4.2%의 성장이 예측된다. 2002년의 성장은 여전히 3.9%로 탄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12%의 성장을 보인 전자통신의 영향으로 97년 실질 성장 3.6%를 이루었다. 가전기와 사무기기는 하락하였고 EDP부문에서의 성장은 4%

98년은 10%로 성장한 EDP 부문과 15% 성장한 무선통신(이동기기 포함)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5% 성장이 예측된다. 그러나 부품부문은 침체된 반도체 시장에 기인하여 5%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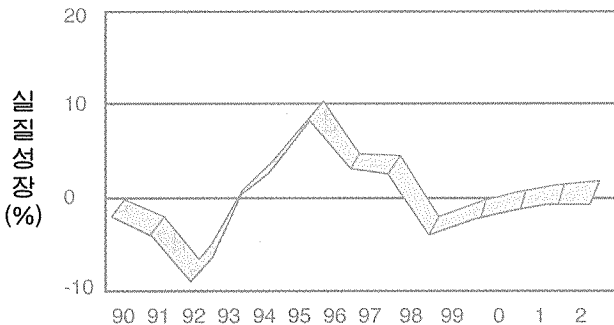
대부분의 부문에서의 성장은 99년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반도체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부품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통화로 보면 일본 시장은 97년 2.9%로 적절한 성장을 보였으나 달러로 환산해보면 통화 가치 하락에 기인하여 6.6%의 하락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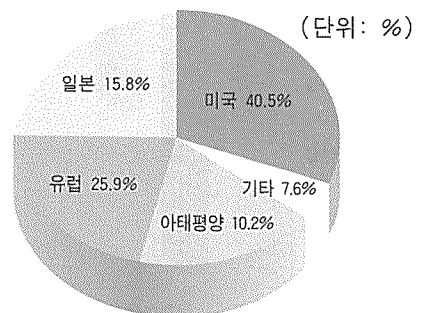
가전기기 부문은 다시 하락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부문은 기계부문과 전자통신 부문이었다.

다소 놀랄 만한 사실은 무선통신 시장의 4% 하락이다. 98년은 일본 내 전자 제품 시장이 실질성장을 11%의 하락을 보인 비극적인 한해였다.

주요 국가의 시장 성장률 1990-2002



1999 시장



모든 부문들이 하락을 보였는데 EDP부문은 12%, 전자통신도 12%, 부품부문은 10%의 하락을 보였다.

1999년은 사실상 변동이 없는 시장에 상승세가 예상되나 여전히 침체된 상태인 경제와 더불어 더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상승세는 주로 부품 부문에서 2% 성장을 이룰 반

도체 시장의 회복에 따른 것이다.

EDP, 제어 기기, 전자통신, 가전 기기 부문은 모두 심한 하락세가 예상된다.

2000년에는 4% 성장하여 2001년과 2002년에는 5%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되나 이것은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기의 빠른 향상에 달려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태평양은 1995년 21%의

성장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지역이었다.

1996년의 성장은 단지 4.5%였으나 이런 둔화의 대부분은 여전히 활발한 컴퓨터 부문과 IC시장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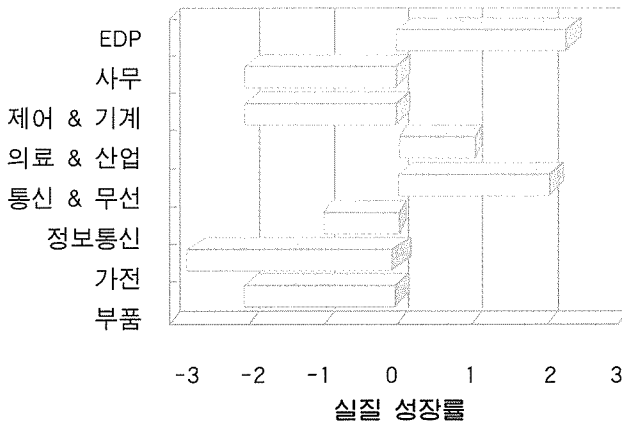
97년동안 지역 통화에 대한 압력이 형성되었고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3.9%의 성장을 보였다. 모든 문제들은 98년에 발생하였고 지역 내 성장은 마이너스 7.4%였다.

최악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약 19%정도로 하락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와 그 다음으로 12%까지 하락한 한국, 9%로 떨어진 태국과 홍콩, 7%까지 하락한 말레이시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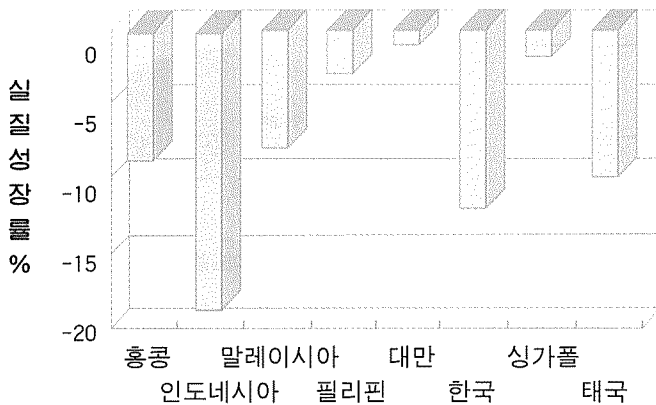
필리핀과 싱가포르, 대만은 단지 약간의 하락이 있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적으로 99년에는 2%로 약간의 성장을 보이고 2000년에는 약 5-6%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아시아 성장의 영향을 받아왔다. 브라질의 성장은 96년 12%에서 97년 3%로 감소되었고 98년에는 -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나서 99년 초 브라질은 자체 통화위기를 겪었고 99년 7%로 조금 더 하락되었다가 2000년에는 5%로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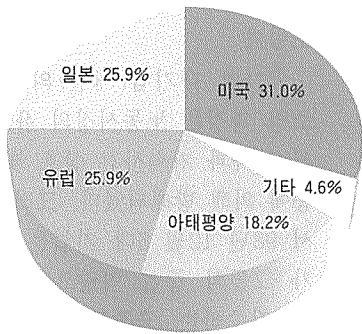
1999 일본 시장 성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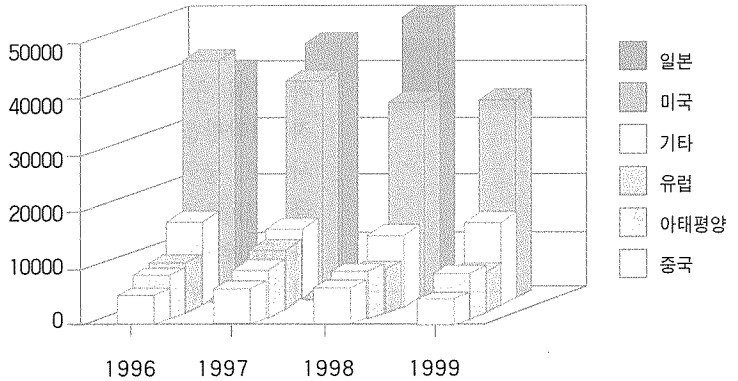
1998 아시아·태평양 시장 성장 (단위: %)



<1998 생산>



<컬러 TV 생산>



인도에서는 전자제품의 국제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97년의 7% 성장에 뒤이어 98년에는 1%이긴 하나 성장이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97년 마이너스 9% 성장을 보였으며 98년에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99년에는 6%, 2000년에는 9%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기기와 부품의 생산은 96년 미화 1조불에서 97년 1조3천불로 4.5% 실질 성장을 보였다. 98년 미국의 생산은 97년의 3.2%에 비해 4.4%까지 성장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눈에 띄게 낮은 성장을 보였다.

일본은 97년의 6%에 비해 마이너스 9% 성장을 보였으며 아태평양 지역은 97년 3.5%의 성

장에 비해 -7%로까지 하락되었다. 총 생산은 -1.3%로 하락했다.

99년의 전망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인다. 97년 총생산의 19%를 차지하는 아태평양 지역은 홍콩을 제외한 전 국가들이 약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비를 넘긴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생산은 여전히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단지 -1%에 그칠 것 같다.

미국의 생산 성장은 98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은 훨씬 더 떨어진 -7%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생산은 2%의 성장이 예상된다.

96년에는 2권의 연간보고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32개국이 99

백4십만대의 컬러 TV를 생산하였다.

99년에는 84백3십만대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보고서의 3권에서 보면 중국에서 생산되어진 대수는 96년에는 4천1백만대에서 98년 5천1만대로 예측되어져 있다.

96년에 서유럽에서는 15%가 생산되었으며 일본에서 5%, 아태평양에서 34%, 미국에서 8%, 중국에서 29%가 생산되었다.

98년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비율이 38%로 증가하였다. 98년에 5천5백만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가 생산되었는데 그중 45%는 아태평양에서 생산되었으며, 20%는 일본에서 16%는 중국에서 생산되었다.